

<2013년 7월30일 화요일 새벽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어렵게 나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가까이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파일도 안 보내고 내가 사진도 안 보냈으니까 나를 몰라. 모르고 있어. 선생님은 전혀 모른다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러다가 늙고 가는 거지 뭐. 에이, 어느 때는 세상을 쳐다보면 정말로 거기서 달리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 높아서 높은 산을 오르지 못하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랬다”고 하면서 그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늙은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선생님을 가깝게 느끼고 가깝게 하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생각보다 다르다. 생각보다 낫다.” 할 것입니다. 높게 생각했는데 낮게 있더라 그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차를 탄 것보다 8배로 빨리 갑니다. ‘야, 어지럽겠구나.’ 했는데 타보면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차는 오히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150키로로밖에 안 달립니다. 120키로, 150키로로 가도 빨리 버쩍버쩍 달려가고 옆에 보이는 것들이 막 스칩니다. ‘비행기는 8배 빨리 가니까 엄청나게 어지럽겠다’ 했는데 타보면 보이는 저 아래의 산들을 보면 천천히 갑니다. ‘이게 무슨 800키로로 달리지?’ 해집니다.

그와 같이 나는 낮지만 달리기는 빨리 달립니다. 생각도 그렇고,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냥 그러저럭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없고 스릴을 못 느끼고 기쁨이 없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크게 사시는 하나님이고 위대하게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래알부터 일개 큰 산이나 바위덩어리 같은 곳까지 왕래하시면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것을 하는 것도 스릴 있지만 작은 것들을 세밀하게 하는 것도 스릴이 있습니다. 처음서 나중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야 이상을 느끼고 보다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주 잠언 가운데 하나를 보면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무슨 잠언인지 읽어 주겠습니다.

“인생을 그저 살아가지만 말고, 땀 흘리고 무턱대고 살아가지만 말고 인생을 느끼면서 살아가라.”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그저 무턱대고 살아가지만 말고 보람을 느끼면서 인생을 느끼면서 살아가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고기를 막 먹고 밥을 막 먹지만 말고 뭔가 느끼면서 씹어가면서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밥 먹듯이 막 퍼붓고서 “아, 배불러. 배가 불룩 올라왔네.” 하고서 숨을 “헹헹”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밥을 하나 하나 먹으면서, 고기는 씹는 맛이라고 고기를 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온 음식인지, 어떻게 만든 음식인지, 이 음식을 만들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도 보고 ‘부엌에서는 30-40 분이나 1시간이요, 자연 속에서 성장할 때는 8개월이요. 나도 음식 같이 금방 뒤가 맛있게 되는 일이 없어. 오랫동안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음식 맛을 느끼면서 먹듯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맛을 느끼면서 살아라. 말은 일만 무조건 그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끝나면 ‘아이고, 됐다. 다 끝났다. 임무 끝! 그야말로 시마이(しまい)! 오시마이(おしまい)!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는 자의 보람과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대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기만 합니다. 임무를 마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데도 힘듭니다. 전도할 때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어떻게든 전도해다 놓고 말씀을 통과시켜서 기르는 것만 목적하는데 그러면 그런 목적에서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나 물어보기도 해야 됩니다.

10살 먹은 사람은 10년 동안의 연륜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한 5, 6년 동안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살짜리는 한 10년 동안의 연륜이 있어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인생 이야기를 하자.” 그런 것을 하면서 전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이야기도 해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자기의 사연과 인생살이를 책으로 쓰면 누구든지 다 읽어볼 만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고 누가 써줄 사람도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대화로 하면 간단하게 그저 한 시간씩 하고 몇 축 하면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실컷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항상 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하고 싶고 여러분도 심리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꼭 그것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시간 없다. 내 이야기 좀 들어보라.” 이렇게 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심리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 이야기도 이 종교 저 종교 이야기를 하며 “시대가 이렇게 흘러왔으니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은 원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하니 지금 내가 왔을 때 저장했다가 그때 필요하면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사람도 굉장히 바쁩니다. 본인도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지 않으면 내가 오지 못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지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구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돌도 거꾸로 세우느냐, 옆으로 눕히느냐, 45도 각도로 세우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 그날 대화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성공비법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의미있게 뜻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치고 음식 맛을 그렇게 깊이 못 느낍니다. 밥을 천천히 먹어야 건강도 좋아지고 위도 좋아지고 음식 맛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게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100미터 뿔 때는 조급하게 뛰어야 되지만 그것도 그 안에서 너무 조급하게 뛰다보면, 실력이 육신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야지 실력 밖으로 뛰면 날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되고 초근초근 꾸준하게 열렬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그렇게 모두 살아주시고 10대가 되었든, 30대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어느 민족이든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결국 큰일을 하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자격이 없다고 조용하게만 살았으면 그냥 초가집에서만 살고 그냥 그 땅에서 조용하게 농사만 짓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크게 안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 없는 인생으로서 끝났을 것입니다.

뜨거운 불도 멀리 있을 때는 차가운 것입니다. 차갑게 느껴지고 실상 차갑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것이 크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있어야 혜택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저 뜨거운 열렬한 태양도 저 북극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차갑습니

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태양이 뜨겁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무슨 태양이 뜨겁냐? 차갑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도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이 뜨겁다는 이야기를 안 해도 여름철에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태양이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삶아 먹게 뜨겁네. 구워지게 뜨겁네. 아, 반지옥이다.” 입에서 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깝게 가야 뜨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도, 여러분들을 대함도 뜨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깝게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육신이 멀리 있으면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가까우면 뜨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으로 가까우면 뜨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인데 육신에 비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마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으면 무엇이 통합니까? 통하는 것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있어도 남남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다른 데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애정도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랑하는 생각하면 가깝게 있으면서 사람이 마음 없는 사람보다 더 뜨겁다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런 세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먹기에 달려서 우리에게 감동이 확 오고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멀리 있어도 그 먼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서 하나님이 와 닿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먹고 멀리 하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도 느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정신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살아서 움직여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들,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과 공포와 앞날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깊어지면서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있으면서 같이 싸움을 해도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애간장이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웃음 속에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필요대로 생활 속에 말씀을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욱 깊이 깨닫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가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따라 충만함에 이르게 영생의 말씀 안에 복도 받고 이상을 이루며 경제 축복도, 건강 축복도, 신령한 축복도, 그리고 땅의 이상의 세계의 축복도 받고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함께 하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할 지어다. 아멘.